孙业组对

2025년 7월호

※위 제호는 일가 김용기 선생님께서 쓰신 필체입니다.



가나안친환경농장의 방울토마토가 영글어갑니다.

7월, '영글다'

알찬 '소식'



울산대학교 위탁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물어가는 '교육'



들깨모종을 심는 모습.

무르익은'농장'



8월 1일부터 옥수수 판매를 시작합니다.



유기농 방울 토마토 마지막 30키로 예약을 받아요!



함께 노작활동을 하러 가는 모습.



7월 25-27일, 사랑 가득한 교회를 대상으로 가나안농 군학교 비전스쿨 과정을 진행했어요.

Contents



0 4 스토리 '꿈마을 청년들' 꿈마을 청년들주찬, 은서, 애리, 권모



0 6 알찬 '소식'들

- 울산대학교 위탁 실증 연구
- 유기농 방울토마토 마지막 예약
- 유기농 옥수수 판매 시작



0 7 후원단체 및 개인 (2025.06)

스토리 '꿈마을 청년들'



2025년 1월부터 가나안농군학교에는 청년들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에 이처럼 다양한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하게 된 이유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역과 섬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 기 때문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땀과 헌신,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장 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꿈마을이 단순히 생활 공간을 넘어서, 이들의 삶을 품고 변화시키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찬

안녕하세요, 가나안 농군 학교 내에 있는 '꿈마을' 에 살고 있는 청년 고주찬 입니다. 저는 현재 원주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마을에 들어오면서 가나안농군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꿈마을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정신'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깊이 공감하게 되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연대하고 싶은 시공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위치한 꿈마을은 청년들이 마음껏 재량껏 기술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곳, 더하여 근로, 봉사, 희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자신합니다. 최근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농사지은 방울토마토를 꿈마을 청년들이 수확/포장해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도전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어색하고 힘겨웠지만, 모두들 한껏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종종 가나안의 편지를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그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권모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성권모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 학교를 자퇴하고 꿈마을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형, 누나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애리

안녕하세요 꿈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 이애리입니다. 저는 대학 휴학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꿈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꿈이 뭐냐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꿈은 이미 경쟁, 입시, 취업과 같은 단어로 치환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꿈이란 참으로 설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슴 벅차도록 두근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꿈마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꿈마을에서 저는 특별히 미래를 위한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이 시간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답답함은 점차 희망과 기대로 바뀌어가겠지요. 그리고 저는 꿈 꿀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한숨 나오는 꿈이 아닌, 떨리는 꿈을 꾸는 저를 기대합니다. 복학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 이 곳에서의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거라고 믿고 있어요.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 나다워지는 나를, 우리를 응원합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은서

안녕하세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꿈마을에 머무르고 있는 임은서입니다. 저는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졌지만, 정작 제 삶의 기반이 불안 정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꿈마을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꿈마을에서의 삶은, 원한다면 식사를 함께하거나 차를 나눠 타고 관리비를 분담하는 (함께 공유하여 비용을 아낄수 있고,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함께 사는 것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꿈마을'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이나 희생보다는, 내가 고민해온 질문을 실제로 살아보며 점검하고, 함께 사는일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왔던 삶의 방향을 구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험이 저는 즐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험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소식

울산대학교 위탁실증연구 진행





울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증연구입니다. 새싹 인삼이 많이 자랐습니다.

가나안비전스쿨 2025-2기, 사랑가득한교회



지난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된 2025-2기 비전스쿨 과정에 사랑가득한교회가 입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세워진 교육 현장에 열정과 개척 정신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기도와 나눔이 어우러진 하루하루 속에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한 참여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 김용기 장로님 처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공동체와 시대정신을 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료소감 중)

교육생들의 마음에 심어진 이 사랑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 매로 영글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교육팀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약 3일간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 쉼터 친구들이 가나안농군학교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짧 은 시간이었지만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체험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친구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 니다!

농장소식



유기농 방울토마토 마지막 판매

2025년 유기농 대추 방울토마토의 수확이 막바지 입니다. 가나안의 바람과 햇볕을 받고 자란 방울토마토를 판매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기농 옥수수 수확 및 판매시작

가나안의 유기농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땅의 힘으로 키운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입니다. 농약 없이 정성으로 길렀습 니다.

1박스(20개) - 20000원 , 1박스(40개) - 40000원 친환경농장팀

후원 개인 및 단체 (2025.06)

개인

강명진 강찬진 권기범 권영인 김기혜 김예찬 김홍주 김축복 노광수 노병현 문태규 박수영 백도현 신민선 신민희 심두자 오혁진 이자경 장소영 장은숙 전상우 정성용 정연국 최만열

단체

충정교회 신림가나안교회 인애교회 온누리교회 강남푸른치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돌다리교회 서문교회 세인교회 대백선교문화재단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 0 7 0 9 9 - 5 1 - 0 5 2 1 6 1 (가나안복민재단)

2025년 7월호 : 영글다

